

박사학위 논문

『蒙語老乞大』와 『捷解蒙語』의 구문에 대한 연구

항가이마

2011년 2월 국어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이현희 선생님

본고는 18세기의 자료인 〈蒙語老乞大〉와 〈捷解蒙語〉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두 자료에 나타나는 구문 구조의 양상을 몽골어와의 비교에 의하여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구문 구조를 살펴보고 하는 것은 두 자료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가 가장 덜 된 부분인 반면 두 언어 양상을 비교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의 주된 대상은 계사문, 존재동사문,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 구문의 실현 양상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문장의 서술어 특성에 따라 '이다' 문형의 계사문, '있다/없다' 문형의 존재동사문,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으로 분류하여, 그들 문형에 대한 몽골어의 예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문형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간다고, 가느냐고, 가라고, 가자고'와 같은 간접인용문의 관점에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어 문체법도 고찰하고자 하였다.

계사문의 경우 평서문의 '이라', '이로다', '이로라'와 의문문의 '(이)냐', 부정문의 '아니'에 대한 기술이다. '이다'가 속하는 통사 범주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다'의 문장에서의 양상을 몽어문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주 관심거리이다. 다음은 두 자료에서의 '있다/없다'가 들어간 문장을 존재 구문, 소유 구문, 소재 구문, 보조용언 구문으로 나눈 후에 존재 구문에서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있다’와 ‘없다’의 형용사적 양상과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해당하는 존재 양상, 소유 구문에서는 이중주어구문, 즉 조사 ‘이’의 중출 양상을 알아보고, 소재 구문에서는 ‘-에 있다’ 구조에 대해 다루었다. 끝으로 보조용언 구문에서는 ‘-아/어 있다’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용사의 경우 형용사 중에서 동사적인 성격을 가진 예와 명어문과 차이가 나는 형용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타동사문은 두 자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그 수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류를 하지 않고, 먼저 문장의 종결에서 시제 범주가 나타는 예를 살펴본 뒤 두 언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정한 예를 골라 논하였다. 이어서 몽골어의 측면에서 본 예를 고찰하였다. 자·타동사문의 종결어미의 경우 몽골어 측면에서 보는 것도 한국어 번역문과의 차이를 밝히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현재 시제의 ‘-mui/mu’, 과거 시제의 ‘-ba/be’, 현재와 미래 시제의 ‘-qu/ku’와 ‘-qui/kui’, 미래 시제의 ‘-na/ne’에 대한 한국어 예문을 제시하여 논하였다.

계속해서 각 구문의 종결형에서 다루지 못한 문장의 연결과 전성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연결어미는 대등과 종속적 연결어미로 나누어, 대등적 연결어미에서는 ‘-고’, ‘-(이)오/요’, ‘-며’, 종속적 연결어미에서는 ‘-니’, ‘-면’, ‘-아/어/여’에 대한 예를 제시하였다. 문장 전성의 경우 현재 시제의 ‘-는’과 과거 시제의 ‘-(으)ㄴ’, 미래 시제의 ‘-(으)ㄹ’ 등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명사형의 ‘-고’와 ‘-기’ 전성어미의 실현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이와 같이 양 언어의 구문 구조 양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명어문에서의 종결형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연결형으로 나타나거나 일부 형태소가 번역되지 않거나 명어문에서도 구어적인 성격의 ‘-ji’, ‘juqui/jukui’와 같은 형태들이 쓰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두 자료는 비록 순수 구어형은 아닐지라도, 구어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